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45>

JCCT 2022-7-6

산업재해보험 급여수급자의 통증과 산업재해서비스 및 생활만족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 Service, Pain, and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ciaries

장유미*

Yu Mi Jang*

요약 본 연구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고통을 수반하는 장애나 질병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건강과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계하여 산재보험 수혜자의 경제적, 심리적 재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고통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는 산재 통증으로 인해 산재 환자가 된 후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와 의료상담 서비스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산업재해 통증은 개인의 특성인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현재의 건강이 좋아져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산업재해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은 재활 서비스와 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이후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합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활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 급여수급자, 산업재해서비스, 산재통증, 삶의 만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socio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disability or disease accompanying the suffering of industrial accident subjects is directly related to individual socioeconomic activity and is a major variable affecting current health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suggest basic data for economic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ciaries by linking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with industrial accident servic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 recipients had an effect on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after becoming an industrial accident patient due to industrial accident pain.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medical counseling services. Occupational accident pain lowers self-esteem,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and even if current health improves,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decreases.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accident-related services can be seen in that the satisfaction of daily life is increased through rehabilitation services and medical consultation services. In addition, it was indirectly confirmed that satisfaction with rehabilitation services and health can be improved as a result of continuing attempts to improve self-esteem suitable for patients in various problems and situations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Key words :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 Recipient, Service, Industrial Accident Pain, Life Satisfaction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8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1일

Received: May 8, 2022 / Revised: June 1, 2022

Accepted: July 1, 2022

*Corresponding Author: jangyoume@hanmail.net
Dept. of Design, Inje Univ,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10년 동안 산업재해근로자는 9만 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기타산업이 34.7%, 제조업이 34.3%, 건설업이 25.3%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사업장 규모로는 전체 재해자의 82.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재해유형은 넘어짐이 17.0%, 끼임이 16.6%, 떨어짐이 15.4%로 3대 다발재해가 전체 재해의 49.0%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통계에서 집계되는 산업재해비율이 실제재해 비율 보다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재해환자들의 신속한 회복과 빠른 직업복귀를 위해 산업재해보상 재활서비스의 합리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심층적이고 동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원직복귀는 산업재해 이전의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근로자를 되찾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1]. 또한 산업재해발생 이후 재해자에게 제공된 요양, 보상, 재활서비스 및 만족도, 재해 이후의 경제활동, 건강 및 삶의 질 등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과정뿐만 아니라 요양 종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2].

한편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 혹은 질병을 가진 근로자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회의적이어서 일반 장애인 보다 사회에 대한 보상심리와 방어기제가 강하고 높은 우울, 불안, 강박증, 대인민감성, 적대감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던 직장과의 대립, 가족, 타인과 관계 유지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1, 3].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의 연구는 산업재해 후 정신질환의 유병, 사회·심리적 재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된 재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부분 치료종결 전에 조사가

이루어져 장애 적응 후 중도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는 산업재해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4].

산업재해자들의 재해경험 시기가 경제활동 연령대이기 때문에 노동 가능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남성이 구주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재취업의 욕구가 강한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1]. 이들에게 취업과 직업은 자활의 기반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사회에 통합된다는 함의를 가지게 되며 사회적 역할수행을 하게 된다. 이 취업과 직업은 산업재해환자에 있어서는 특히 건강의 회복과 직결된다. 통증의 경우 의료재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인 영향과도 연결되어 일시적인 소외 뿐만 아니라 이후의 취업과 고용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6].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운영 목적은 근로자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적절한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재활 등의 사업운영을 통해서 구체화 되며 보상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7]. 하지만 이러한 목적하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근로자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며, 요양과정 중 보상성 신경증, 외상성 신경증,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8]. 또 산업재해의 발생은 노동력의 상실과 생산성 및 공급을 저해하며 나아가 장기질환 및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보장비용을 증대시키고, 대상 가족의 생활 및 성장기 자녀들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11].

산업재해 의료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의료관리원과 산업재해지정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근로자 요양에 대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통해 지급된다. 요양급여에는 산업재해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와 치료 이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치료와 직업훈련을 위한 기초훈련으로서 재활적응 훈련이 포함된다. 치료 중 재활적응훈련은 산업재해장애인의 잔존능력일 최대화 하여 작업능력일 배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산업재해장애인에게 무료로 보장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료관리원이나

산업재해지정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거의 비현실화 및 급여항목 제한으로 재활치료가 실시되고 있다[6]. 또한 산업재해환자들의 적합한 재활치료와 사후관리 및 사회복지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상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상담과 직업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적절한 직업훈련과 연계, 취업 및 자영지원, 사후관리서비스 등 일관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및 사회복지 지원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산업재해환자의 통증을 동반한 만성화된 장애상태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상생활기능 훈련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같은 질병 또는 같은 부상을 경험한 경우 때때로 그 요양기간이나 재취업의 양상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것인지, 가족 및 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제공되는 산업재해관련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다양한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조사하거나 연구한 경우는 전무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재보험 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통증, 건강,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영역인 산업재해서비스와 개인적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함께 파악함으로써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생활만족 증진을 위한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통증, 산업재해서비스, 자아존중감, 건강, 생활만족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생활만족을 위한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통증, 산업재해서비스, 자아존중감, 건강, 생활만족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통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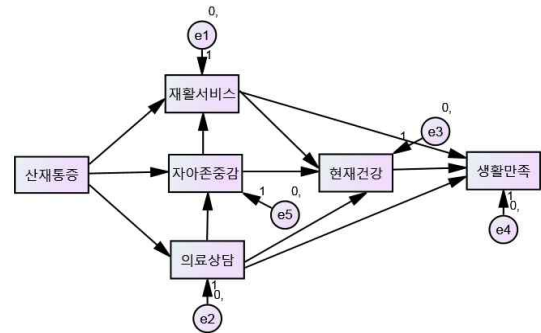


그림 1. 경로모형
 Figure 1. Path model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한 산재패널 1차 코호트 자료로, 산재급여수급자였던 산재요양종결자 82,493명에게 1:1 면접조사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즉 산재패널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산재통증, 산업재해서비스, 자아존중감, 건강, 생활만족변수를 사용하였다. 산업재해관련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사회적 재활관련 서비스와 의사가 중심인 의료상담서비스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그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Table 1. Variables

Variable	Content	Measure method
산재통증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4문항)	4점 Likert척도
재활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만족(9문항)	5점 Likert척도 역코딩
자아존중감	현재 자신에 대해 느끼는 정도(10문항)	4점 Likert척도 역코딩
의료서비스	담당의사의 의료상담서비스 만족(5문항)	5점 Likert척도 역코딩
건강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4문항)	4점 Likert척도
생활만족	일상생활만족(6문항)	5점 Likert척도 역코딩

변수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체는 Chronbach's α .867이었다. 재활서비스는 Chronbach's α .984, 자아존중감 Chronbach's α .896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Amo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로분석은 변수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공분산이나 상관관계수에 의해 인과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의사효과, 총효과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절대 부합지수인 χ^2 , RMSEA와 산대부합지수인 CFI, NFI를 사용하고자 한다.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RMSEA \leq .05이면 모델 오류의 정도가 아주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05 < RMSEA < .08이면 그런대로 괜찮은 모델이며, RMSEA \geq .10이면 부합도에 문제가 있는 모델로 평가한다. 또한 NFI > .90이면 만족할 만큼의 향상을 가져온 좋은 모델로 평가하고, CFI > .90이면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산재보험 급여수급자들은 남성이 80.6%였고, 연령은 50대가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5.5%였다. 근로기간은 1개월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1년 미만이었다. 산재급여 요양기간은 3개월 이하가 40.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34.9%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는 직장을 복위하든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던 간에 취업자가 76.7%를 무급가족종사자, 실직자, 미취업자는 23.3%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통증, 산업재해서비스, 자아존중감, 건강, 생활만족 정도

표 3에서와 같이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의 평균점수는 2.0±0.88점, 재활서비스만족 총점의 평균점수는 17.96±6.72점, 의료상담서비스의 평균점수는 2.1±0.62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총점의 평균점수는 22.96±3.10점, 현재 건강정도 평균점수는

2.67±0.9, 일상생활만족 총점의 평균점수는 16.18±3.11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성별	남성	66478 (80.6)
	여성	16015 (19.4)
연령	20대 이하	7361 (8.9)
	30대	13392 (16.2)
	40대	21058 (25.5)
	50대	26753 (32.4)
	60대 이상	13929 (16.9)
근로기간	1개월 미만	26035 (31.6)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3020 (15.8)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098 (7.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9469 (11.5)
	1년 이상 - 2년 미만	6669 (8.1)
	2년 이상 - 3년 미만	4029 (4.9)
	3년 이상 - 4년 미만	2909 (3.5)
	4년 이상 - 5년 미만	1635 (2.0)
	5년 이상 - 6년 미만	6851 (8.3)
	10년 이상 - 20년 미만	3682 (4.5)
20년 이상	2097 (2.5)	
요양기간	3개월 이하	33118 (40.1)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28824 (34.9)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11890 (14.4)
	9개월 초과 - 1년 이하	4075 (4.9)
	1년 초과 - 2년 이하	3646 (4.4)
2년 초과	940 (1.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3304 (76.7)
	미취업자	19189 (23.3)

표 3. 주요 변수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3. Mean and S.D. of variables

Variables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M±SD
산재통증	1 - 4	1 - 4	2.0±0.88
재활서비스	5 - 45	9 - 29	17.96±6.72
자아존중감	10 - 40	10 - 35	22.96±3.10
의료상담서비스	1 - 5	1 - 5	2.1±0.62
건강	1 - 4	1 - 4	2.67±0.9
생활만족	5 - 30	61 - 28	16.18±3.11

3. 대상자의 통증, 산업재해서비스, 자아존중감, 건강, 생활만족 인과관계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산재로 인한 통증, 재활서비스, 의료상담서비스, 자아존중감, 건강, 생활만족의 인과관계와 영향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산재통증으로 인한 현재의 건강과 생활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해 재활서비스, 의료상담서비스,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경로분석하였으며, 각각 모형의 직·간접효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MIN=153.737, df=4, p=.000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NFI=.838, CFI=.839, RMSEA=.013으로 부합도가 양호한 좋은 모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료상담서비스와 자아존중감(경로계수 =-.168, p>.05), 자아존중감과 재활서비스만족(경로계수 =.173, p>.05)에서만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나고 나머지 모든 경로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급여수급자가 산재통증으로 인해 산재환자가 된 후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의 건강에는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나 재활서비스와 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서는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표 4. 경로분석

Table 4. Path analysis

Path	Est.	S.E.	C.R.	P
의료상담 ← 산재통증	.133	.032	4.114	***
자아존중감 ← 산재통증	-.326	.081	-4.039	***
자아존중감 ← 의료상담	-.168	.197	-.853	.394
재활서비스 ← 산재통증	6.795	.515	13.200	***
재활서비스 ← 자아존중감	.173	.170	1.017	.309
현재건강 ← 재활서비스	-.050	.004	-13.287	***
현재건강 ← 자아존중감	.014	.009	1.612	.107
현재건강 ← 의료상담	-.145	.038	-3.838	***
생활만족 ← 현재건강	-.923	.184	-5.016	***
생활만족 ← 재활서비스	.045	.017	2.618	.009
생활만족 ← 의료상담	.594	.188	3.165	.002

표 4를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2,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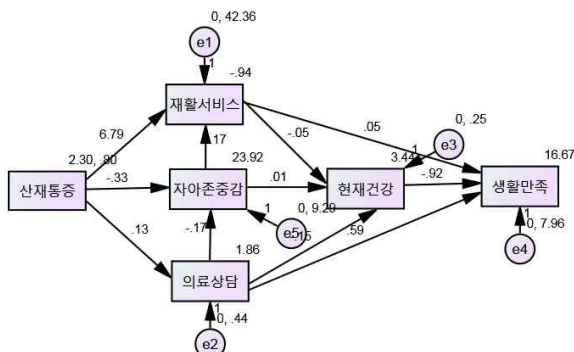


그림 2. 경로분석 (비표준화)

Figure 2. Total path analysis (Unstandardized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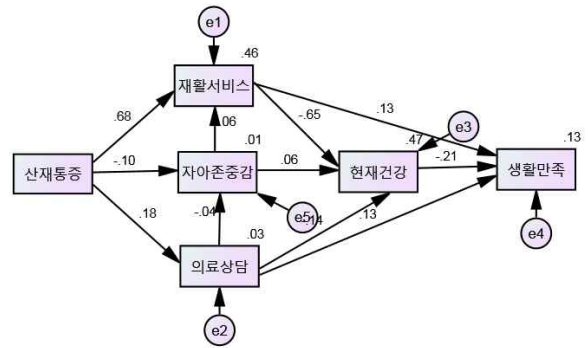


그림 3. 경로분석 (표준화)

Figure 3. Total path analysis (Standardized estimates)

표 5, 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된 점수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재통증은 재활서비스 만족과 의료상담서비스 만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현재건강에는 부적인 간접효과를, 일상생활 만족에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활서비스 만족은 현재건강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생활만족에는 정적인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상담서비스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현재건강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생활만족에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재활서비스 만족과 현재건강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표 5. 총효과

Table 5. Standardized total effects

Variables	산재통증	의료상담	자아존중감	재활서비스	현재건강
의료상담	.177				
자아존중감	-.102	-.037			
재활서비스	.678	-.002	.060		
현재건강	-.471	-.145	.025	-.647	
생활만족	.211	.162	.003	.267	-.208

표 6. 직접효과

Table 6. Standardized direct effects

Variables	산재통증	의료상담	자아존중감	재활서비스	현재건강
의료상담	.177				
자아존중감	-.095	-.037			
재활서비스	.684	.000	.060		
현재건강	.000	-.144	.064	-.647	
생활만족	.000	.133	.000	.132	-.208

표 7. 간접효과

Table 7.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Variables	산재 통증	의료 상담	자아 존중감	재활 서비스	현재 건강
의료상담	.000				
자아존중감	-.007				
재활서비스	-.006	-.002			
현재건강	-.471	-.001	-.039		
생활만족	.211	.030	.003	.135	

IV. 결론

본 연구는 산업재해환자의 통증을 동반한 장애 혹은 질병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직결된 현재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만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증, 건강,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산업재해서비스와 연결지어 규명함으로써 산재보험 급여수급자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재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논의해보면, 산재보험 급여수급자가 산재통증으로 인해 산재환자가 된 후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재통증은 현재의 건강에는 부적당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나 재활서비스와 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서도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산재통증으로 인해 개인적인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현재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도 일상생활 만족은 낮아진다. 하지만 재활서비스와 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생활 만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산재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측정된 자아존중감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후 자아존중감만을 살펴보았으나 산업재해 후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한 환자에게 적합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는 재활서비스 만족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 이후 우리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지촉진의 중요성이 추가되면서, 산재보험이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세워지고 재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요양종결후의 산재장애인의 건강관리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등 재활서비스의 수혜 폭을 넓히고 질을 향상하여야 하는 실질적 삼을 위한 서비스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체계에서는 지역별 서비스자원의 불균형, 연계의 경험과 기반, 연계가 활발한 중심조직 등이 상이하여 산재의료원과 산재지정병원, 재활병원, 가정간호센터 등의 지역별 맞춤형 사례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이 체계가 커뮤니티케어시스템으로 모델링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되어 의료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와 사회복지와 더불어 산업재해 급여수급자의 건강이 증진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본 연구가 전체 산재보험 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는 남성이 현저하게 많고 산재보험 급여수급 이후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더 많았다. 추후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환경, 장애와 질병,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 유형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조사하여 직접, 간접 영향 및 매개변수의 효과 등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W. Lee and S. K. Kim, "A Thoughts on Introducing a Mandatory Return-to-work Provision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and Health Disabilities*, Vol. 57, No. 2, pp. 71-91, 2014. DOI: 10.20971/kcpmd.2014.57.2.71
- [2] H. J. Hean, J. J. Oh, J. M. Choi, H. J. Lee, and S. Y. Yoon, "Ability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2, No. 2, pp. 164-170, 2003.
- [3] B. Y. Jeon, S. M. Kwon, B. H. Cho, and T. j. Lee,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ccupationally Injured Peopl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6, No. 2, pp. 199-222, 2010. UCI: G704-000662.2010.26.2.009
- [4] C. M. Chang, N. H. Choi, H. S. Kang, and S. H. Park, "The Levels of Impacts of Event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jured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234-242, 2009. UCI: G704-001647.2009.20.2.008

- [5] J. D. Yoon and S. K. Par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Disabled Workers due to Industrial Injuries,"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5, No. 2, pp. 103-123, 1998.
- [6] J. D. Yoon, S. J. Park, and E. G. Yeo, "A Study on the funding system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7, No. 1, pp. 145-177, 2000.
- [7] Y. J. Lee, "Problem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Management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4, pp. 263-272, 2011. UCI: G704-001475.2011.11.4.050
- [8] V. J. Derevery and W. H. Tullis, "Delayed recovery in the patient with a work compensable injury,"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Vol. 25, No. 11, pp. 829-835, Nov 1983. PMID: 6227713
- [9] H. W. Lim and S. J. Kim, "A study on ways to make employment improve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university information public,"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9, No. 3, pp. 174-180, 2021.
- [10] J. Kim, "The Effect of Employ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Labor Practices on Corporate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2, pp. 23-28, March 31, 2022.
- [11] J. Y. So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hat have returned to Their Original Workplace after Industrial Medical Car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Vol. 26, No. 3, pp. 65-94, 2016. DOI: 10.15707/disem.2016.26.3.003
- [12] M. S. Go, "The Effects of Dis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Injured Workers: Mediating Effect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Health and Welfare*, Vol. 21, No. 1, pp. 27-49, 2019. DOI: 10.23948/kshw.2019.03.21.1.27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2092454)